

신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금 공유 조례' 추진

전국 최초... 지역 공공자원 발생 소득 주민과 공유 문 정부 탈원전 정책 동참·소지역갈등 해소 기대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간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에 나서 논의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고, 에너지 개발 이익과 관련한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에너지 개발 이익에서 소외됐던 지역 주민들에게도 소득이 발생해 관련 분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군에 따르면 박우량 신안군수는 최근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역주민과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30% 범위에

서 참여해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주민과 발전사업자, 금융 및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박 군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안군은 1MW미만 태양광발전 1,642건(616MW), 대규모 태양광 3건(187MW), 해상풍력은 15건(3,719MW)이 신청됐고 구상중인 발전사업 또한 상당하다"면서 "이는 정부의 오는 2030년까지 목표량 48.7GW 가운데 신안군 신청량은 4.5GW로 약 9%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하지만 대부분이 대기업 또는 외부자본이 개발해 막대한 이익만 가져가는 구조다"면서 "이로 인한 난개발 우려와 주민 투서,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간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했다. 그는 "현재 자라도에서는 3개 업체가 57MW의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이를 1MW미만, 104개 사업 단위로 쪼개서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과 보상 관련 문제로 지역 갈등이 심각해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에 따라 에너지 개발사업에 30% 범위로 주민들이 참여할 경우, 자라도 전체 주민이 개인당 연간 600여만 원의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

다. 박 군수는 "신재생에너지가 신안 군민의 희망이다. 구조적 시스템을 잘 만들어 시행한다면 전국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기자

내고장 일꾼



전동평 영암군수는 8일 오후 2시 군청 낭산실에서 열리는 2018 영암군기부심사위원회에 참석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8일 오후 2시 완도읍에 위치한 해양생태전시관 개관식에 참석해 전시관을 관람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8일 오후 3시 상항실에서 열리는 제46회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의에 참석한다.

목포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내달 28일...장기결석 아동 등

목포시가 다음달 2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행정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00세 이상 고령자 및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무단전출자와 허위전입신고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된다.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감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담당공무원과 통장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세대를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해남 농어촌마을 하수처리 정비 박차

현산일평 마을하수처리시설 준공...34억 투입

해남군이 추진중인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육천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에 이어 이달부터 현산 일평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준공, 운영하고 있다.

현산 일평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해 마을하수

처리시설로 모아 법정수질 이하로 정화 후 방류하게 된다.

하루 최대 85㎡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현산면 일평마을과 탐담마을을 211세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한다.

총 사업비 34억원(국비 24억원, 군비 10억원)이 투입됐다. 하수처리장 1개소, 중계펌프장 1개소, 관로 4.24

km를 설치했다.

특히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현산천 수질개선은 물론 각 가구에 설치된 개인정화조를 폐쇄함에 따라 분뇨 수거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게 됐다.

현재 해남군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해 송지면 학가리 등 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화산면 방축리와 문내면 고평지구 등 2개소의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준공할 예정이다.

/해남=박병태 기자



해남군이 농어촌마을 하수도 처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준공된 현산 일평마을 하수처리시설.

강진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총력'

농가 소득증대 간담회...추석 특수 홍보 마케팅 논의

강진군이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판로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강진군 농특산물 직거래사업단은 최근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변하는 소비자 변화에 대응하고, 강진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등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 모색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올해 직거래사업단은 수도권과 대도시 직거래 장터에 27번 참여, 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어 대도시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전국 판매망 구축하고 고객대상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수특산물 직거래사업단은 또 '신선·신속·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는 농산물

을, 농어업인에게 소득증대를 안겨주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업단은 다음달 다가오는 추석명절에 강진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품질관리와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농특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농산물 가공산업을 확충해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겠다"며 "잘사는 농어업인,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진도 '아리랑 8미' 음식대학 운영

한정식 저변 확대...지역내 맛집 육성 기대

진도군이 새로운 음식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 '제1기 진도군 음식대학'이 최근 수료식을 개최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열린 진도군 음식대학은 매주 목요일 이론과 실습 등 9회 과정으로 운영, 30명이 수료했다.

간재미, 꽃게, 전복, 바지락, 낙지, 울금 수육, 등복 갈비탕, 한정식 등 '진도 아리랑 8미'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음식과 차별화된 조리 기법 등이 교육됐다.

음식점 업자들은 "진도군 음식대학 교육을 통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진도아리랑 8미 음식을 선보이고 위생, 친절 등 최상의 서비스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오는 2019년에 진도대명해양리조트가 완공함에 따라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객들에게 휴식을 주고 더욱 더 머물고 가고 싶은 진도의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친절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사 010-4601-5323
- 목포 010-3272-2765
- 011-632-0323
- 010-3635-6777
- 신안 010-4627-1472
- 영암 010-4624-8409
- 진도 010-3624-4777
- 완도 010-5619-7020
- 해남 010-8181-2627
- 강진 010-6646-1241

클릭! 고향 소식



해남 전국학생·생활체육 탁구대회

한국 탁구의 미래를 이룰 최강자를 가리는 전국남녀학생종별탁구대회가 해남에서 열리고 있다.

해남군은 오는 10일까지 우슬체육관에서 제5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학생종별 탁구대회를 개최한다.

대한탁구협회가 주최하고 전남도탁구협회, 해남군탁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경기는 전국 초중고 및 대학부 엘리트 선수 2,000여명의 참가해 단체전과 개인단식, 개인복식으로 나뉘어 토너먼트 경기를 갖는다. /해남=박병태 기자



영암산림항공관리소 헬기 안전점검

영암산림항공관리소가 최근 방문한 류광수 산림정 차량과 헬기 운용 현장을 점검했다.

해병대상륙기동헬기(MUH-1 마린온) 추락사고 이후 산림헬기 전반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수리용 헬기를 이용한 야간산불진화 추진사항을 살펴봤다.

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발표될 해병대 헬기 추락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식 기자



해남 도로변 가로수 열차단 작업

해남군은 가로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 해결책도 모색하고 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발생한 산물을 톱밥과 우드칩으로 만들어 신규 가로수 식재지인 삼산면 송정리길 외 4개소에 깔았다.

또한 주변 지형의 영향으로 건조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황산면 남리교차로 ~ 문내면 사교교차로 구간은 신규 식재된 먼나무 550주의 지주목에 폭염 피해 예방에 효과적인 차광막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목포 찾아가는 치매예방 교육

목포시가 치매 예방관리 및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다. 시는 지난달부터 모두 7회에 걸쳐 대한노인회목포지회 강당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어르신 51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오는 9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64명을 대상으로 치매 바로알기, 치매어르신과 대화방법, 치매인지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치매관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박승경 기자